

시민 다양한 목소리 현장서 듣는다

우범기 전주시장, 16일 덕진동 시작으로 35개 모든 동 순회 '시민과 함께하는 동 순방' 추진

우범기 전주시장(사진)이 전주의 위대한 도약과 대변을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시민 삶 속으로 찾아 나선다.



전주시는 오는 16일 덕진동을 시작으로 오는 5월 말까지 우범기 시장이 35개 모든 동을 순회하며 전주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2023 시민과 함께하는 동 순방'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동 순방은 민선8기 전주시정에 대한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각 동별로 유관기관·단체장과 자생단체 회원 등 주민대표 100~500여 명씩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동 순방은 민선8기 전주시정 비전인 '강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실현을 위해 각 동별로 △동 현황 청취 △2023년 시정운영 방향 설명 △시민과의 대화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우 시장은 이번 순방에서 민선

8기 전주시 비전과 주요 사업계획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시간도 갖게 된다.

시민과의 대화는 현장에서 자유롭게 진행되며, 전주발전과 각 동별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답변이 가능한 것을 끝바로 설명하고 이후 해당부서에서 면밀한 검토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앞서 우 시장은 민선8기 시장 취임 이후 현장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천해왔다. 구체적으로 우시장은 전주의 대변을 위해 산업·경

제·문화·복지·규제개혁 등 주요 핵심사업 현장을 꾸준히 찾고 있으며, 계묘년 새해를 맞아 각 실·국별 업무 보고도 주요 사업장에서 진행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가 강환경제를 통해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도약과 변화를 갈망하는 시민들께서 목소리를 내주셔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전주가 시대를 뛰어넘는 자랑스럽고 자부심 넘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은경 기자

평화1동 주민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로 탈바꿈된다

전주시, 2026년 10월까지 청소년센터·다목적강당·요리실 등 갖춘 주민 위한 공간으로 건립

전주시가 노후화된 평화1동 주민센터를 청소년센터와 다목적강당, 요리실 등의 기능을 포괄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새로 짓기로 했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건축된 지 26년이 경과해 노후화된 평화1동 주민센터를 주민들을 위한 행정·복지·문화거점이 될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로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화1동 주민센터는 현재 노후화된 시설 탓에 이용이 불편하고, 대로변에 위치해 청사를 찾는 시민들이 주차에 불편을 겪거나 종종 사고위험에 노출되기도 했다.

이에 시는 완산구 덕적골1길 32(평화동 1가 500-6) 일원에 평화1동 주민센터를 옮겨 짓고, 그간 전용공간이 없었던 남부권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활동 공간도 갖추기로 했다.

시는 이날 중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하는 것을 시



전주시가 노후화된 평화1동 주민센터를 청소년센터와 다목적강당, 요리실 등의 기능을 포괄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새로 짓기로 했다.

작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와 시의회 공표재산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에 돌입할 예정이

다. 이후 오는 2024년 12월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6년 10월까지 복합커뮤니티를 준공한다는 구상이다. /양은경 기자

이와 관련 기존 행정과 복지 중심의 주민센터를 주민 생활 거점인 행정복합커뮤니티센터로 조성하는 것은 우범기 전주시장의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으로, 시는 현재 혁신동·예곡시터·효자동 주민센터를 행정복합커뮤니티센터로 건립하고 있다.

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민센터가 행정복합커뮤니티센터로 변신하면 시민들이 한 곳에서 편리하게 행정·복지·문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물론, 공동체 문화를 복원·활성화하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시민들이 행정과 복지, 문화, 공동체 활동을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전주시 권역별 편의시설 분포와 청사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들어서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이웃간 소통 강화로 마을 공동체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양은경 기자

통합허가사업장 맞춤형 1:1 현장컨설팅

전북환경청, 지난해 신규 통합 허가 받은 23개 사업장 대상 진행

환경오염물질 복합배출 사업장의 자율환경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이 실시된다.

송호석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 청장에 따르면, 통합환경허가를 받은 전북권 사업장을 대상으로 1:1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컨설팅은 법정 정기검사에 앞서 통합허가 내용에 따라 사업장별로 적용받게 되는 법령 준수사항, 환경오염방지시설 최적 운영요령 등을 안내해 사업장별 자율관리를 유도하고 환경법령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다.

전북권에서 통합환경허가를 받은 사업장 61개소 중 2022년에 신규로 통합 허가를 받은 2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13일부터 오는 4월 28일까지 환경청 담당인력이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

2021년부터 실시된 전북지방환경청의 맞춤형 컨설팅은 사업장의 법령 위반율을 매년 크게 감소시켜 기업 자위과 함께 전북지역 자율환경관리 체계 정착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컨설팅과 함께 환경관리 현장의 건

의사항도 청취해 제도개선과 사업장 지원방안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소병훈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장은 "통합허가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사업장 통합환경관리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사업장과의 현장소통을 강화하여 통합환경관리체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민 위한 집수리학교 운영

스스로 고쳐 쓰는 집수리 문화 조성 위해 교육생 모집

오래된 내 집을 직접 고쳐서 살고 싶은 전주시민들은 올해부터 전주시 집수리학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센터장 오은주)는 오는 24일까지 '2023년 집수리학교'의 기초과정 1회차 교육생 30명을 센터 누리집(jhousewell.co.kr)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집수리학교'는 전주시가 최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시민들의 주택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실생활에 필요한 집수리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살고 있는 집을 스스로 고쳐 쓰는 생활형 집수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시범사업이다. 사업은 전주시 주거복지센터가 위탁을 받아 시행한다.

교육 기간은 오는 3월 15일부터 2주간(매주 수·목), 총 4일 과정(1일 4시간, 총 16시간)으로 이론 및 실습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이다.

전주시 주거복지센터는 이번 기초과정 1회차 교육을 시작으로 올해 전주시민 120명을 대상으로 △공구 사용, 건축·목공, 생활전기

등 기초과정(3회) △배관·방수, 단열·타일 등 공간 리모델링 심화과정(1회) △집수리 봉사 현장실습(2회) 등 다양한 분야의 집수리 학교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자세한 과정별 교육 일정 등은 향후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누리집을 통해 수시로 공지될 예정이다.

오은주 시 주거복지센터장은 "이번 집수리학교 운영을 통해 향후 수요자 맞춤형 집수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집수리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주거복지센터는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서비스 수행 전담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용욱 시 건축과장은 "그동안 주거복지사업이 저소득층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번 '집수리학교'를 계기로 주거 취약계층뿐 아니라 집수리 수요가 있는 일반 시민에게까지 대상이 확대돼 보편적 주거복지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은경 기자

전주시 완산구, 시민맞춤형 공원녹지 관리 대책 추진

'시민과 함께하는, 변화로 도약하는 완산' 목표를 세운 완산구청은 관내 시민 위한 적극행정에 온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완산구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원·녹지분야에서 시민 맞춤형 중점관리 추진 계획을 세웠다.

그동안 공원 내 미분리 남녀공용화장실 10개소에 대해 남녀화장실 분리했다.

여기에 화장실 주변 화단 식재를 통해 여성이용객들과 공원을 찾는 여려

이용객들에게 깨끗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한다.

구는 시범사업으로 시비 2천만 원을 들여 '은행나무 열매 결실 제어 사업'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으며, 하천 유지관리 사업 5억원 추가로 편성해 이용객 불편사항 제로화에 도전장을 던졌다.

임익준 완산구청장은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탄탄한 구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도장애인복지관, 주요 사업 안내 설명회 가져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은 2023년 핵심 사업 안내 사업설명회를 지난 9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그동안의 복지관 운영현황 및 주요성과 등을 포함해 도내 지역주민과 복지관 이용자들 대상으로 마련했다.

이번 설명회는 그동안의 복지관 운

영현황 및 주요성과 등을 포함해 도내 지역주민과 복지관 이용자들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복지관에서 진행되는 주요 사업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또 지역사회 내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사업 참여를 향상을 위해, 질의응답 방식으로 이어졌다.

/김영태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